

# 실종자 가족 한없는 기다림 '눈물의 바다'

■ 다시 찾아온 4월 ... 세월호 참사 1주기 앞둔 팽목항 가보니

팽목항에도 어김없이 4월이 왔다. 그 날을 "잊지 않겠다"던 다짐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운 때문일까. 1년 전 그 곳을 막상 대하니 상처가 도진 듯 화끈거렸고 따끔했다.

꼭 1년 전, '통곡'으로 가득했던 팽목항은 지난 31일 조용했다. 추모객과 자원봉사자가 발디딜 틈 없던 팽목항에는 봄비만 종일 내렸다.

1년 전, 슬픔으로 차마 보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봄꽃들이 다시 팽목항 주변에 흐드러지게 피었지만 마주하기가 부끄럽기만 하다. 달라진 게 별로 없어사다.

1년 전 이맘 때, "잘 갔다올게"라며 집을 나섰던 아이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

자원봉사자·추모객 발길 뚝  
울씨년스런 침묵·그리움만...

9명의 실종자 가족들  
"선체인양 소식은 언제..."

교사 고창석·양승진씨, 단원고 학생 조은화·허다운·남현철·박영인군, 권재근씨, 아들 혁규군, 이영숙씨, 부폰 기습을 안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우리 아이들, 그들을 인솔했던 선생님, 그리고 새 삶을 찾아 제주도 행 여객선 세월호에 몸을 실었던 그들은 언제쯤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세월호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잠겨 있다. 희생자들을 기다리며 "잊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도, "달라지게 하겠다"던 약속도 만족스럽지 않다.

마지막 한 명의 희생자까지 수습하겠다는 정부는 지난해 11월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수색종료를 선언했고 기다렸다는 듯 팽목항을 떠났다. 세월호 인양과 진실 규명의 목소리는 당시의 동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듯 하다.

팽목항에 남아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이영숙씨의 동생 이영호(46)씨, 권재근씨 부자의 형 권오복(60)씨 뿐이다. 희생자들이 잠든 맹골수로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염없이 잔인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진실 규명과 선체 인양을 촉구하며 팽목항에서 광화문까지 483km 도보순례의 고행을 이어가는 희생자 가족들, 희생자 수습 등을 촉구하며 광화문 거리로 나와 정부를 향해 메아리 없는 외침을 쏟아내는 세월호 유가족들.

4월이 가장 슬픈 그들에게 또다시 잔인한 4월이 돌아왔다. 그래서 팽목항을 마주하기가 더 미안하다.

실종자 가족 권오복씨는 "희생자 가족들이 바라는 건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주고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세월호에 갇힌 동생과 조카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세월호 침몰 사고는 끝날 수 없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힘줘 말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지난 31일 오후 진도 팽목항에는 사고 당시의 번잡함은 사라지고 희생자들과 실종자들을 추모하는 노란 리본들만 바닷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잊지 말고 기억하자 세월호'

광주·전남 시민단체 참사 1주년 앞두고 잇단 추모행사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은 '추모 주간'을 설정,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 행사를 기획, 진행하기로 했고 교육청도 '추념 기간을 정해 안전 계기 수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종교계에서는 추모 예배가 열리고 문화계에서는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한 공연 등을 무대에 올린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민대책위와 광주여성회는 8일 광주시의회에서 '5·18 민중항쟁부터 세월

호 참사까지 심리학으로 보는 우리 사회'라는 주제로 심리학자 김태형씨의 강연을 진행한다. 앞서 1일에는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부터 8일까지는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9일부터 17일까지는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선박 인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한다. 분향소는 광주YMCA에 설치될 예정이

다. 세월호 1주기를 맞는 16일에는 세월호 시민대책위와 민주노동 등 각종 시민단체가 동구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에 집결해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10일을 '세월호 참사 1년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위령제·시민대회 등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

이들 단체는 8일을 시작으로 '기억하라! 세월호, 바꾸자!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월호 참사 1주년 광주시민대회, 세월호 인양 촉구 서명운동, 세월호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운동 등을 진행한다.

시민단체인 광주시민상주모임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빛고을 1000일 순례' 행사로 오는 16일 풍암·일곡·수완지구에서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촛불모임을 계획하

고 있다. 이들은 광주에코바이크 회원 등과 함께 12일부터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416km를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리홍보 프로젝트 '따르릉 따르릉 자전거 국토순례'를 진행하는 한편,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전국 범국민대회에도 참여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5일 5개 자치구별로 '세월호 진실과 생명 안전을 위한 시민패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구의 날 행사와 연계, 동구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 생명 존중과 안전을 주제로 한 각종 전시·체험행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416가족협의회는 오는 28일 예정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엄정한 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음식점·PC방·커피숍 담배 피우면 흡연자 10만원·업소 170만원 과태료

이달부터는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연초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그동안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이달부터 계도없이 금연구역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으며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자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후 첫 석 달간은 엄격하게 단속을 하기보다는 바뀐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업소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계도에 중점을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4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뀐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업소에서 위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확대된 금연구역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에 중점을 두고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바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광주 대인동·여수 공화동 집창촌 폐쇄 될까

정부, 24곳 집중 단속

정부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점검 등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실제 폐쇄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0일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제 3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고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 24곳에 대한 실태 및 폐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점검단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경찰청 등 18개 부처·청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전국 24곳 집결지 중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동구 대인동과 여수시 공화동 일대가 포함됐다는 게 여성가족부 설명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집결지 24곳에 대한 합동 실태 조사를 거쳐 '유리방'으로 불리는 전업형 성매매 업

소와 원룸 등 주거지에서 운영되는 무등록 업소 등 10곳 이상 몰려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경우 성매매업소 29곳(유리방 16곳·무등록 업소 13곳 추정)이 운영중인 것으로 최근 자치단체 실태조사로 파악됐다. 다만, 여수지역의 경우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성매매업소 24곳에 대한 실태 및 폐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 경찰·소방·교육청·성매매피해 상담소 등 유관 기관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을 구성하고 해당 시설의 건축 허가·소방시설 구비·학교보건법·식품위생법 준수 등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이행금지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로 폐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비자 분실했다 내려달라" ... 비행기 회항 소동



○...인천공항에서 비자를 분실한 한국인 승객 7명 때문에 활주로로 이동하던 항공기가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등 한바탕 소동.

○...지난 3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133명이 탄 OZ347편 항공기는 인천공항에서 중국 시안으로 출발 예정으로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승객 7명이 단체 관광비

자 원본을 잃어버렸다고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아시아나항공은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해 비행기를 되돌리느라 출발시간이 1시간10분이 늘어났는데, 항공사 관계자는 "승객 7명은 끝내 비자를 찾지 못했고 탑승 수속 당시엔 비자를 가지고 있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